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원동 344-20 현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8월 2일 금요일 (음 7월 2일) 제234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새만금 잼버리 대한민국 리셉션 31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중인 송하진 도지사 및 전북도잼버리팀은 지난 7월 22일 시작되어 12일간 약 139개국 4만4000여명의 글로벌 청소년 리더들이 참여해 아영 대축제를 펼치고 있는 제24회 북미세계잼버리 현장을 방문해 '2023 새만금 잼버리 대한민국 리셉션'을 열고 차기 잼버리 개최지로서 공식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다.

새만금 신항, 국가재정사업 전환 확정

선박 대형화 추세 따라 부두규모 5만톤급으로 확대
크루즈·잡화 겸용부두, 기존보다 길이 430m만큼 늘려
민자 계획된 1단계 부두 2선석 재원, 국가 재정 변경

전북도는 2~3만톤급이던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규모를 5만톤급으로 확대하고 1단계 부두 2선석을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해양수산부의 신항만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빠르면 금주 중에 전자관보에 고시될 전망이다고 1일 밝혔다.
부두시설은 당초 2~3만급에서 5만급으로 확대하고 수심은 부두규모에 맞게 12m에서 14m로 증고했으며 항만 기능 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만배후부지를 당초 114만2000㎡에서 388만㎡로 대폭 확대하고 준설토투기장도 추가 확보했다.

고려하여 목표연도 1단계를 2023년에서 2030년으로, 2단계를 2030년에서 2040년으로 연장했다. 총 부두시설 9선석 중 6선석을 1단계에 집중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며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두 2선석은(잡화·크루즈 겸용부두, 잡화부두)는 2025년까지 우선 완공할 계획이다.
기재부에서는 그동안 새만금 내부개발 지원, 항만시설 공급 과잉 등을 이

유로 부두시설 재정사업 전환에 앞서 당초 계획대로 민자로 추진하고 민자유치 실패 시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도는 부두시설을 민자로 추진할 경우 개발여건 부족 등으로 부두개발은 점점 지연되고 새만금 지역의 기업유치도 더욱더 어려워질 것을 고려하여 지역정치권, 해양수산부, 지역언론 등과 협력하여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역 중점공약에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내부개발 촉진'이 포함되어 있고 항만, 공항, 철도 등 기본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새만금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해 마침내 기재부의 협의를 이끌어 냈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후 후속절차로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변경, 내년에 1단계 부두시설 2선석의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수산업정책관은 "전북도민과 힘을 모아준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글로벌 물류 중심 항만 도약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새만금 신항을 농식품가공수출단지, 농생명유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식품특화항만으로 육성하고 대형선박 입출항이 상시 가능하도록 수심 추가 확보와 부두시설 규모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산단, 국가산단 전환... 위상 '경충'

정부, 내부개발·투자유치 확대 힘 실어줘... 새특법 개정이 주인

새만금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서 그 위상이 격상되었다. 이번 새만금산단의 국가산단 전환은 새만금 내부개발·투자유치 확대에 정부가 힘을 더욱 실어준 것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산단은 최초 경제자유구역법에 의거 2010년 6월 일반산업단지로서 건설되었으나,

2012년 12월 새만금사업특별법 제정으로 새만금산단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국가산단 전환이 필요했다.
새만금산업단지의 개발·관리 업무 및 권한은 이미 새만금청으로 일원화(전북도 → 새만금청)됐으며, 이번에는 산단의 법적 지위를 관리기관(새만금청)에 부합하도록 국가산업단지로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새만금산업단지처럼 일반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서 전환한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번 결정이 새만금산단 위상 제고와 실질적인 투자유치, 국가정책지원 추가투입 효과 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가산단 전환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을 통해 가능했다.
/김진성 기자

社告

"청소년이 아름다워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2019 제9회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

일시: 2019년 8월 3일(목) 오후 2시
장소: 전주 중부 비전센터 5층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시키고, 이들의 건강한 놀이문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19 전국 청소년 미술경연대회'를 오는 8월 3일 전주 중부 비전센터 5층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최: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전주시연맹
공동주관: 사한국청소년동아리 연맹 전주매일신문사 JJC 지방자치TV
후원: 동아보건대학교 미술학과 전주시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 (063-288-9700)

*제9회 청소년 미술대회 입상자는 동아보건대학교 미술학과 특기생으로 입학 가능.

익산 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 승인

전북도는 제3차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과한 익산 국가산단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승인받아 기반 시설 정비와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변화의 길을 걷게 된다고 1일 밝혔다.
익산국가산단은 1974년 준공이후 섬유·귀금속·반도체 업종을 생산 거점으로 지역 경제·산업 발전에 선도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전통 주력산업 쇠퇴, 기반시설 부족 등 재생사업 추진이 시급했다.
주차장 확충 및 공원조성, 스마트 가로등 도입 등을 계획에 반영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유해업종의 단계별 이전, 공장 현대화, 정보통신산업 유치 등 경쟁력 있는 산단으로 변모할 예정이다.
현재 재생사업지구 지정 및 재생계획에 맞춰 재생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내년부터 용지매수 등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현대옥이야기

①현대옥의 수오지심 ②신메뉴이야기 ③지역사회 참여 ④콩나물국밥의 맛 ⑤스토리가 있는 현대옥콩나물국밥 ⑥소중한 조리 유산-토령국밥 ⑦오늘은 엄마를 쉬게 하자 ⑧새로운 시작

[추억의 즐라맨, 성년이 되다 ②]

"오늘은 엄마를 쉬게 하자"

"엄마, 아빠 나는 현대옥스테이크"

Copyright © 2000. (주)유니트픽처스 all rights reserved.
현대옥, 캐릭터 즐라맨 라이선싱
- 현대옥 메뉴북 중 -

오늘은 엄마를 쉬게 하자!

오늘은 우리가족 현대옥 가는 날!

우리동네 1등식당, 현대옥!

"이제 우리가족도 현대옥외식을 한다."

- 다양한 국밥
- 다양한 결들임 메뉴

(* 어린이 인기메뉴: 현대옥스테이크)

전주현대옥
JEONJU HYUNDAI OK
Korean Restaurant Since 1974